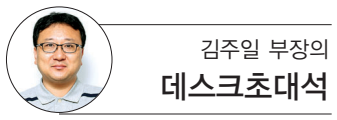


불교는 내 靈魂과 詩心の 안식처



김주열 부장의
데스크초대석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시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성지 등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 해마다 한국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 그래서 혹자는 아직도 현재 인도에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와 이 인도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 보니 가야국을 건국한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 황옥과의 결혼이 출발점이었다. 그 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인도의 흔적이 우리 역사 속에 짙게 채색돼 있다. 인도의 남부 첸나이 지방엔 특히 암바, 아빠, 아리랑 등의 단어와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한다. 또 구자라트 지방에는 '아이스케 키'라는 말까지 같다는 게 인도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의 말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언어, 풍습, 종교 등이 흔재한 인도는 나라 자체가 박물관처럼 생각된다.

특히 인도의 세계적인 시성인 타고르는 일제강점기 우리에게 '동방의 빛'이라는 시로 용기를 주었다. 일본 방문중 춘원 이광수의 한국 방문요청에 건강이 좋지않아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는 시(詩)를 대신 써 보냈다. 1929년 3월 28일 일본 고베 강연 후 나가사키에서 건강을 추스르며 썼다고 한다. '동방의 빛'이라는 짧은 시(詩)지만, 억압받던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의 역할을 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받은 백작 작위를 반납한 김윤식처럼 영국의 작위 수여를 반납한 타고르를 보고,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인도에도 김윤식 같은 사람이 있었구만' 하고 칭찬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타고르에 대한 존경 가교 역할로 인도에 관심 갖기 시작
40년간 왕래하며 인도의 희귀한 문화 유물 수집에 전력
구순 바라보는 나이 무색할 정도로 '영원한 현역' 과시
동시대를 산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헌정시 및 음반 발매

평생을 이 타고르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인도의 모든 것을 사랑한 불자 시인이 있다. 김양식 인도박물관장(86)이다. 인도를 40여년 간 왕래하며 모은 인도유물로 2011년 인도 박물관을 개관했다. 서울 서초동 남부 터미널 근처 광림빌딩 2층에 위치한 박물관은 인도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물 뿐 아니라 초등생이나 유치원생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도 있었다. 5월 2일 김 관장을 인도박물관에서 만났다. 1층 입구에 전시된 법륜을 보며 2층 메인 전시관에 올라가니 마치 고대 인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려 있는 타고르의 사진은 김 관장이 평생 시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터뷰를 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예감은 적중했다. 타고르는 그의 멘토였다. 김양식 관장은 인물전기학회사 타고르 시인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이때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시인(詩人)인 줄만 알던 타고르의 그림이 인도서 국보급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인도 대사조차도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한다.

80대 중반인 김 관장은 나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아직도 영원한 현역이었다. 소녀 같은 감성은 끊임없는 시심을 발동시켰다. 동시대를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를 짓고, 곡을 붙여 음반을 만들어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20일에는 W스태이지 안국에서 '애국시 낭송과 가무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어허 뉘이로다 뉘이로다'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피 우시는가' 등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낭송하고 부르기도 했다.

"어허, 뉘이로다 뉘이로다/ 한평생 피명든 뉘이로다/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기전/애눔에게 끌려가 총칼 앞에 무릎 꿇고/산 넘고 물 건너 수십 만리 뉘들의 전쟁터에서/갓은 행패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고 넘기며/내 평생 씻지 못할 깊은 속병 들어/올다 올다 피눈물 흰 치마폭에 평평 쏟아졌구나" (어허 뉘이로다 뉘이로다 중에서)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피 통곡하시는가/어찌 그리도 피명진 이품 끝내 풀지 못하고/한평생 깊은 아픔속에 남몰래 숨어들어/애눔에게 짓밟혀 산산 조각난 몸뚱이를 겨우 추스르시고/피눈물 쏟아내며 이리도 뉘 많은 세상을 사셨는가" (어머니, 어찌 그리도 슬피 우시는가 중에서)

B1면에 계속



김양식 인도박물관장이 박물관 입구 1층 로비에 전시된 대형 '법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자신의 애장품중에 하나인 이 '법륜'은 산스크리트어로 '달마 차크라'라고 하며, 만(卍)자와 더불어 불법을 나타내거나 부처님 형상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물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사진=노덕현 기자